

# 원도심 마을 커뮤니티에 기반한 시민참여형 도시녹화기법 연구

## - 인천 남구 주안 5동을 대상으로 -

한봉호\* · 최진우\*\* · 정문순\*\*\* · 최태영\*\*\* · 유소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재)환경생태연구재단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I. 서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많은 도시의 공원녹지가 파편화되었거나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고밀화된 원도심은 공원 녹지의 부족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권 내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최근까지 도시 내 공원녹지의 조성은 도시의 브라운필드를 활용한 대형 공원이나 소규모 부지 매입을 통한 공원 및 휴게공간 조성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 도시 내 공원 조성을 위한 가용 부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고가의 부지 매입비용과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규모 있는 공원 녹지의 조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골목길, 도심 이면도로, 소규모 공지 등 생활권 주변지역의 소규모 녹화를 통한 녹지 확보를 통해 파편화된 도시녹지의 연결이 필요하였다.

최근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에 대한 주민 의식과 애정을 가진 시민들에 의해 살기 좋은 마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연구 대상지인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5동 사례도 마을만들기의 일종이며, 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있어 주민참여에 의한 커뮤니티 형성을 추구하여, 마을 공동체의 회복 및 지속가능한 녹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커뮤니티란 특정지역 내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고 조화로운 공생을 통해 존속을 피하는 사회집단을 의미한다(하성규 등, 1999). 담장허물기 등의 거주지 외부환경 개선을 통해 커뮤니티 공간이 확보되면 이웃 간의 교류가 증대되어 마을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다(하재명, 2005; 이경환, 2009). 커뮤니티형 그린웨이란 부족한 녹지 확충 및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생활권 녹화를 실시하여 커뮤니티 시설과 녹지를 연계하는 그린웨이를 의미한다(박숙현, 2013). 박숙현(2013)은 인천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20개 노선을 선정하여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연구는 그중 첫 번째로 계획이 추진된 주안 5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제까지 마을만들기나 시민참여형 환경개선사업은 주로 규모가 큰 마을단위 사업이나 골목길, 시장, 한평공원 등 특정 지역

또는 소규모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커뮤니티형 그린웨이의 대상인 원도심의 생활권 이면도로는 주택, 상가, 보행 및 차량 이동과 주차가 혼재하는 복잡한 환경으로서 녹지 조성 여건이 매우 불리한 지역이며,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웨이를 조성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커뮤니티 디자인을 통해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을 추진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5동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녹화기법으로서 향후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추진과정의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5동 마을 이면도로인 석정로 375, 376번길, 길파로 27번길 일대로 노선 길이 1,007m, 노선 폭은 약 7m이었다. 노선 주변으로 초등학교, 성당, 교회, 시장 등이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지역이었으나, 보차도 구분이 일부만 되어 있고, 노선변에 상시 주차된 차량들로 보행이 불편하였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과 저층 아파트, 소규모 상가 등이 분포한 거주지로서 녹화를 통한 환경 개선이 요구되었다.

#### 2. 조사 분석 방법

주안 5동 주민참여에 의한 커뮤니티형 그린웨이는 주민참여 유도, 주민참여 형성, 주민 디자인 워크숍, 주민 주체 참여 단계의 4단계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각 추진 단계별 세부적인 진행 내용을 살펴보고, 단계별 주요 추진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마을 커뮤니티에 기반한 그린웨이 조성의 성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주안 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의 시작인 주민참여 유도 단계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주

민설명회 및 홍보가 진행되었다. 주민설명회 이전까지는 주민들 사이에 교류된 와전된 정보로 인해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주민참여 디자인에 대한 정보전달이 미흡하여 계획안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오해가 반대 의사를 키우게 된 원인이었다.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 이후에는 주민들의 이해 증진 및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주민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전문가의 주도로 진행된 첫째 과정은 지역 주민들의 오해와 갈등, 문제 제기가 발생하였고, 설명회를 계기로 주민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빠른 정보 전달 및 주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였다.

주민참여 형성단계에서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한 논의, 주민참여 마을조사를 통한 중점 대상지 도출, 상가 앞 녹화를 위한 상가주 대상 설문조사, 마을만들기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진행되었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일반 지역 주민의 참여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마을 내 여론 형성 및 조직력을 갖춘 통장들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마을 통장들과 함께한 마을 조사를 통해 중점 녹화가능 지역이 도출될 수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진과 주민이 접촉하여 주민참여의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주민의 소극적 참여의 단계이었다.

주민 디자인 워크숍 단계는 중점 조성대상지 이해관계자인 지역 주민들과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여 조성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각 대상지별 대안을 작성하였고, 작성된 대안을 가지고 주민평가 및 종합 워크숍 과정을 통해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가와 행정, 그리고 주민의 협력이 이루어진 단계로서,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참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단계이었다.

마지막 단계인 주민 주체 참여 단계는 최종 계획안을 가지고 각 대상지별 이해관계자 대표와 지속가능한 녹지 관리를 위한

녹지(주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협정을 통해 향후 커뮤니티형 그린웨이가 조성된 이후 주민참여에 의한 녹지 관리가 실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심화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실제 녹지 관리에 있어 전문성 있는 주민 가드너를 양성하고, 주관 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추진 동력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는 커뮤니티형 그린웨이의 완성과 함께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주민 공동체 형성의 단계이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시민참여형 도시녹화 계획사례로서 인천광역시 남구 주관 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계획을 분석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첫째, 초기에 주민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였고, 둘째, 마을리더로서 여론형성과 조직력을 갖추고 마을정보 제공과 주민모임 추진 및 의견수렴이 가능한 통장들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셋째, 주민 워크숍 시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성공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전문가, 행정, 주민이 함께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박숙현(2013) 인천광역시 남구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1p.
2. 이경환(2009) 근린의 보행환경이 지역 시민의 커뮤니티 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12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7): 203-210.
3. 하성규, 신중진, 장세훈, 홍인옥, 서종균(1999)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도시연구 5: 198-219.
4. 하재명, 김묘정(2005)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도시 단독주택지 가로공간 계획.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4): 159-166.